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강만)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일하는 김정희(54) 씨에게는 소망 하나가 있다. 공연장 등을 갖춘 단독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설립된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고, 문화학교 등 행사를 진행할 강의실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의 지방 문화원은 총 5곳. 각 구별로 한 곳씩 운영중이다. 대개가 헌법 제9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 1994년 이후에 설립됐다. 최근 문화와 복지가 삶의 핵심기초로 부각되면서 지역 문화센터로서 역할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전승 취지 설립 지방 문화원  
재정·인력부족에 공연·전시장 등 독립공간 없어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마련... 재원확보도 힘써야



지역 문화원이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공연장 등 시설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서구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 한층 공연 모습. <광주 서구문화원 제공>

■광주 지방 문화원 현황

문화원	원장	설립년도	전화번호
광산문화원	류복현	1965	941-3377
남구문화원	이종일	1999	671-7356
동구문화원	류경성	1998	225-5815
북구문화원	이종철	1995	527-7701
서구문화원	강만	1994	681-4174

# 광주 자치구 문화원들 “할 일 참 많은데...”

▲광주 5곳...만성적 재정난 시달려

지방 문화원은 향토전문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전승하는 일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는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백일장·사생대회,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 답사를 진행하고 향토사 연구 등 학술사업을 위해 '서석' '무등문화' '빛고을 문화' '문화극장' 등 원보다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원 자체의 독립된 공간이 없고, 운영 인력도 적어 설립목적 명시된 사업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5곳 모두 지자체 건물 등 공공건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얻어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문화원의 실무 행정업무 외에 공연, 전시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은 염두도 못 낸다. 유일하게 동구문화원만이 다용도 공간으로 50㎡(약 14평) 규모의 자체 갤러리를 갖추고 있다.

재원 부족도 지방 문화원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2009년 문화기반시설총량을 보면 광주는 국고를 포함, 문화예술예산 중 0.49%인 5억2000만원을 문화원 운영예산으로 지원했다. 이는 자치단체 중 최하위이다.

광주시는 올해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시지회에 사업비 2000만원을,

구 문화원에 각각 58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턱없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문화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해문화원이 지역 향토기업인 태광실업과 결연을 맺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년 1000만원을 기부받아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벤치마킹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재원 확보·사업 다각화 과제

문화원 사업을 진행할 전문 인력 확보도 관건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4개 지방

문화원의 상근직원 평균 인원은 대도시 3.1명, 중소도시 2.5명, 농어촌 2.1명이다. 광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 문화원이 사무국장과 간사 등 2인 상근체제로 운영돼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방 문화원의 사업 다각화도 과제다. 향토문화 답사, 문화학교 등 기존의 획일화된 사업에서 벗어나 문화원별로 특화된 사업으로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적응해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찾아가는 예술 공연' 등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 타 문화예술단체와 경쟁하고 주민들을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희 사무국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진행되는 어르신 문화학교나 수준높은 전시·공연, 공동체 삶과 전통문화 지킴이 활동 등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시지회장은 "대도시 인구증가와 함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문화 욕구 확산으로 지방 문화원이 운영하는 각종 활동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아지며 지역 문화원의 현실은 열악하다"며 "단체장들이 문화원 위탁사업을 확대하고 시설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 등 획기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국문화, 미국문화

### 최운형 개인전 신세계 갤러리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14일까지 서양화가 최운형씨의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최씨는 'FLYING SHITS'를 주제로 낙서처럼 보이는 글씨들을 배열시킨 신작을 선보인다.

이들 작품에는 유학시절 작가가 경험했던 한국문화와 미국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담고 있다.

최씨는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브로큰 잉글리시'(broken english)라고 말한다. 영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일상에서 느끼는 생각과 소통의 장벽을 이야기 한다.

최씨는 조대여고를 졸업한 뒤



'무제'

미국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학사, 예일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쳤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국악과 함께하는 발렌타인 데이

### 14일 '천원의 낭만' 나빌레라예술단 무대로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이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나빌레라 국악 예술단과 함께하는 발렌타인 데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나빌레라 국악예술단은 다양한 창작무용을 선보이는 젊은 예술가 그룹으로 지난 2009년 창단됐다.

이번 무대에서는 여인들과 선비들이 한데 어우러져 풍류향기에 취해 노니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 '풍류속 그 향기'를 시작으로 민속춤이 지닌 특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태평무', '사랑일레라', '사랑! 그놈의 기다림' 등 창작춤을 선보인다.

또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아리랑'을 타악그룹 열수의 고장길씨가 함께 무대에 올린다.

출연진은 최인경·김영연·한명선·



<최인경>

함아름씨 등이 출연한다.

그밖에 '행복플러스'에서는 특별한 사연과 추억을 지닌 커플이 무대에서 프리포즈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됐다.

문의 062-226-2030. www.gjasia.or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반쪽이 만화가 최정현 작가와의 만남

### 12·27일 금호갤러리 '고물 자연사 박물관'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는 오는 12일과 27일 오후 2시 '반쪽이의 육아일기'의 만화가에서 이제는 입체조형 예술가로 활동중인 최정현(50·사진) 씨를 초청, 관람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최씨가 폐품으로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고물 자연사 박물관'(7~2월 27일)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이번 작

가 초청 행사에는 옷걸이를 이용한 작품 제작 시연회도 함께 마련된다.

'반쪽이...' 책을 가져오면 작가가 직접 사인도 해준다.

또 다양한 정크 아트를 만끽하면서 나무를 이용해 곤충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행사도 곁들여진다. 관람료 4000원. 문의 062-360-843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음식연구가·사진작가 강영숙

### 11일 '잔치음식-美親氣生'전

우리 음식 연구가이자 사진작가로 활동중인 강영숙(51)씨가 대인시장에 다원문화 공간 '이화점'을 오픈한다.

강씨는 오픈 기념으로 11일 오후 5시 우리 고유 잔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잔치음식-美親氣生'전을 연다.

이날 전시에서는 꼬막속주 셀러드, 모싯잎 죽갠떡, 전 카나페, 간재미회, 단호박 양갱·검정쌀과자 등이 선보

일 예정이다. 또 방죽만세 등 음악인들의 무대도 마련된다.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광주대 사진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강씨는 '이화점'을 자신의 작업공간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어우러진 다원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문의 062-471-26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해링展

**KEITH HARING**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2.27까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열심히 일한 당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I LOVE**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과도한 업무, 무한 경쟁압박,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 잦은 과음으로 지치고 힘든 나의 간- 이제, 사랑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성공한 인생과 행복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간장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특히 40대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간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 간장질환자의 60~70%가 바이러스성 간염과 관련 되어 있으나, 알코올이나 약물, 비만 등도 간장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잦은 음주로 인한 알콜성 간장질환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국제약품이 함께합니다.

손상된 간세포와 간조직을 재생하는 - Carduus Marianus Extract가 함유된 만성 간질환, 독성 간질환 보조 치료제

간장보호기능 생약성분 및 비타민 복합제

**리버비타** 연질 캡슐

\*기타 제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제약품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513-2, 개빌/아케팅 TEL: 031-781-908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1091-0300